

주요소식

직원이 건강해야 회사도 건강하다! 우리 회사 임직원 제18회 부산마라톤대회 참가



우리 회사는 5월 15일 다대포 일원에서 열린 '제18회 부산마라톤대회'에 단체로 참가했다. 시민 1만여 명과 함께 뛰며 대회의 열기를 더한 임직원 및 가족들은 5km, 10km, 하프코스 등 각자의 달리기 수준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 시원한 바닷바람을 만끽했다.

우리 회사는 2005년부터 매년 선보인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부산마라톤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조선업계의 위기 속에서 마라톤코스 완주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롭게 목표의식을 다지는 계기로 삼고자 많은 임직원이 참가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일수록 임직원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해 직원들간의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

직원들과 함께 5km를 완주한 최금식 대표이사는 "각자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함으로써 직원들의 자부심이 높아졌고 조직간의 의사소통도 원활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하다"며 "선보가족들이 이번 마라톤대회로 인해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가득 채웠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특히 이목을 끈 참가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 회사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주인공이다. 2013년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온 무하마드(29), 크리스(28)와

필리핀에서 건너온 알빈(40), 존(39)이 마라톤에 참가했다. 이들은 회사가 위치한 다대포 일대의 풍경을 배경으로 힘차게 달렸다. 함께 달린 동료들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흔들리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했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날려버리는 순간이었다. 그들에게는 우리 회사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단합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다. 동료들과 어울리며 함께 달리는 동안 그들의 입가에서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대회가 끝난 후 우리 회사 부스에서는 자녀와 함께 참가한 임직원에게 영화티켓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회사에서 마련한 음식을 나누며 화합을 다졌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직원 한 명 한 명을 찾아다니며 음식을 입에 직접 넣어주는 등 선보가족의 단란함을 뽐냈다.

선보가족 모두 낙오 없이 끝까지 완주한 마라톤대회는 성황리에 막이 내렸다. 참가한 임직원들은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달렸듯 회사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며, "새로운 각오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혁신하여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결의를 다졌다.

방문

한국남부발전 이근탁 기술본부장 일행 우리 회사와 기술 협력 논의



지난 6월 1일 한국남부발전 이근탁 기술본부장과 부산상공회의소 시찰단이 기술 협력 논의를 위해 우리 회사를 찾았다. 이날 이 본부장 일행은 우리 회사의 수(水) 처리 시스템 설비현황과 구평2공장의 선박평형수처리 설비(BWMS,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시험 장치를 시찰하고,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냉각수에 오존 공법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최근 우리 회사는 조선 경제 위기 타파를 위해 다방면의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이 본부장 일행 방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교류와 협력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수상

기술력 및 직원복지 인정받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



우리 회사는 5월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2016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인증서를 수여했다.

노동부는 일자리 친화, 고용유지율, 기업신용도, 기술력 우수 등을 기준으로 '청년 친화 강소기업'을 연 1회 선정하고 있다. 올해 부산에서는 11개 기업이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우리 회사는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어 향후 기업홍보, 청년인턴 기업지원, 병역특례업체 선정시 가점부여, 클린사업장 지원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꾸준히 인재 양성에 힘쓰고 복지증진에 노력함으로써 직원들의 행복을 함께 이뤄가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을 전했다.

회사소식

최금식 대표이사 Face for Child 캠페인에 적극 참여 약속

최금식 대표이사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하기로 약속했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부산일보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의 공동캠페인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하라, Face for Child'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은 5월 24일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렸다. 지역 오피니언 리더 55인 중 한 명으로 선포식에 참가한 최금식 대표이사는 부산지역 기업을 대표해 격려사를 전했다.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하라'는 어른이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이웃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적극 감시하도록 유도하는 범시민 연중 캠페인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얼굴 서명활동과 언론을 통한 공익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 더불어 연말에 개최될 정책제안 세미나는 캠페인의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인사 및 전문가의 발표에 이어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부산시가 개선해야 할 정책제안으로 마무리될 계획이다.

평소 아동복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최금식 대표이사는 "아동학대는 전 사회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동안의 방관적 태도에서 벗어나 학대로부터 아동을 지키고 행동하는 어른으로서의 실천과 다짐이 필요하다"며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하는 물결이 전국에 확산되기를 바라며, 선보공업 또한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수상

김청옥 상무이사 중소기업청장 모범 근로자상 수상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해온
김청옥 상무이사가 중소기업청장 모범 근로자상을 수상했다.



지난 5월 20일 중소기업중앙회 주관 '2016 부산중소기업·소상공인대회'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우리 회사 김청옥 상무이사가 '중소기업청장 모범 근로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부산중소기업·소상공인대회는 부산 지역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이 큰 중소기업인, 근로자 및 육성공로자 등 중소기업 유공자의 경

영의욕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중소기업주간 중에 해마다 열리는 행사다. 올해 행사는 모범 중소기업인, 모범 근로자 등 25개 기업의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었다.

김청옥 상무이사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청옥 상무이사의 중소기업청장 모범 근로자상 수상은 우리 회사 임직원에게 모범이 되었을 뿐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우리 회사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청옥 상무이사는 "대내외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끊임없는 혁신을 바탕으로 도전정신을 발휘해 우리 회사가 업계를 선도하는 주역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회사소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꿈나무 장학생 우리 회사 방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는 '산기협 꿈나무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5월 27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및 과학영재학교에서 선발한 산기협 꿈나무 장학생 중 20여 명과 우리 회사에 방문하여 기업현장 견학을 시행했다.

'산기협 꿈나무 장학사업'은 장래가 촉망되는 이공계 고등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해온 사업이다. 매년 5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재학기간 3년 동안 장학금을 지원했고, 현재까지 150명이 지원을 받았다. 장학생에게는 1인당 매년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기업현장 방문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제공된다.

우리 회사를 찾은 장학생들은 다대1공장과 구평1공장 현장 견학을 통해 제품의 연구개발 및 생산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최금식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평소 우리 회사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묻기도 했다.

기업현장 견학에 참가한 장학생들은 "평소 관심 있던 중소기업을 견학하고 CEO를 만나는 것은 흔치 않은 경험인데, 궁금한 점에 대해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좋았다"며 "앞으로의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청년 인재와 기업을 연결하는 '희망 이음 프로젝트' 등 인재 양성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지역 내 취업난 해결 및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회사소식

선보엔젤파트너스 컨소시움 사업 착수회 및 현판 전달식 갖고 창업 초기 기업 지원사업 착수



6월 1일 선보엔젤파트너스 주관으로 부산특구 내 기술 창업 지원을 위한 엑셀러레이팅 사업 착수회 및 현판 전달식이 개최됐다. 이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는 엑셀러레이터로 선정한 선보엔젤파트너스 컨소시움에 현판을 전달했다.

부산 특구에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인 엑셀러레이팅 사업은 특구 내 예비창업자,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멘토링, 창업초기자금 선투자 및 후속투자 연계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창업 초기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동의대 산학협력단,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등과 컨소시움하여 부산특구 내 기술창업 지원에 힘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서 선보엔젤파트너스와 부산연합기술지주는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창업 초기자금 선투자 등 엑셀러레이팅 부문을 맡고, 동의대 산학협력단은 예비창업자 발굴 및 교육, 창업공간 제공 등을 담당한다. 선보엔젤은 2년간 직접 투자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등의 인큐베이팅을 통해 부산특구 연구소기업 등 창업초기기업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선보엔젤파트너스 컨소시움은 엑셀러레이팅 사업 지원을 통해 창업 15개사, 연구소기업 3개사 설립 등을 목표로 공공기술 기반의 창업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선보엔젤파트너스 주관 제1회 부산대학교 스타트업 발굴 공모전 성황리에 마무리



선보엔젤파트너스가 주관하고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와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부산대학교 스타트업 발굴 공모전'이 지난 6월 1일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진행되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스타트업 발굴 공모전은 창업자의 증가와 창업기업 사업화 촉진에 발맞춰 엑셀러레이터의 경험을 통한 스타트업 발굴 및 성공사례를 확산함으로써 지역 창조경제의 주역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다. 총 70여 명의 참가자가 스타트업 Value-up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스타트업 사업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미래 전략을 논리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도출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결과, 3개 팀을 최종 선발했다.

그 결과, 타액으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제품을 발명한 스타트업을 분석한 '엔젤인어스팀'이 대상을 수상했고, 최우수상은 온라인 유통 사업자를 위해 물류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을 분석한 'PMS팀'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화상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을 분석한 '영검의 5초'와 IOT웨어러블 플랫폼으로 산업현장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을 분석한 '핑키핑키핑키업팀'이 수상했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이번 공모전이 단순 아이디어 발굴에 그치지 않도록 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팀의 성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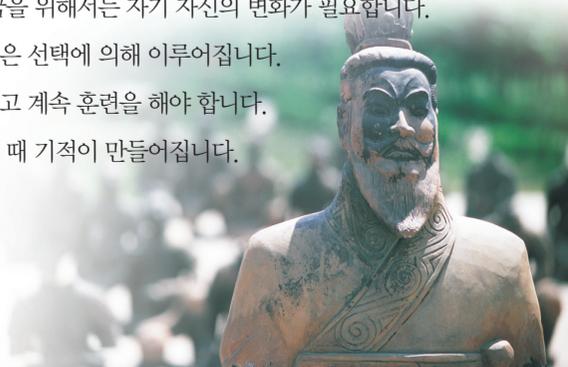
CEO MESSAGE

큰 꿈을 가진 사람

[출처: 일지희망편지]

중국 한나라 때 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어지러운 나라를 구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동네 건달들은 평소에 한신이 잘난 척을 한다며 다리를 째 벌리고 그 밑으로 기어가면 살려준다고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신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싸우다 죽으면 그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신은 무릎으로 기어 그 다리 밑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기어 큰일을 하겠다.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하겠다.” 정말로 큰 사람은 꿈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인간관계를 망치거나 비전을 버리는 사람은 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큰 꿈이 없을 때는 자기의 습관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편하긴 하겠지만, 결코 기적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큰 꿈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선택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HSE

여름철 고온작업환경에 대한 재해 예방

1. 재해발생의예

- 가. 작업장의 고열·고온방지 시설미비에 의한 재해 : 용해작업 및 열간가공 작업자의 열피로(Heat Stress) 유발
- 나. 온도상승에 의한 위험물 폭발·화재
- 다. 온도상승에 의한 원자재 손실
- 라. 선풍기의 회전부에 협착 또는 임시 배선에 걸려 전도

2. 예방대책

작업장내의 온도, 조명의 양과 질, 소음 등은 모든 작업장에서 볼 수 있는 작업환경이며, 그 중 온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작업능률과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장내의 온도를 조절한다.

가. 체온조절

- 육체노동은 체내에서 열을 발생시킨다. 정상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발한작용이 일어난다.
- 고온 환경에서 불쾌하다고 느끼는 것은 의미 있는 경고이다.

작업의 강도	작업내용	허용 온도레벨
지극히 경작업	손끝을 움직이는 정도 (사무, 계감시)	32℃
경작업	가벼운 손작업 (선반, 감시 보턴 조작, 보행)	20℃
중등도 작업	상체를 움직이는 정도 (줄질, 자전거 주행)	29℃
중등도 작업	전신을 움직인다. (30~40분에 한 번 휴식한다.)	27℃
중작업	전신을 움직인다. (즉시 땀이 난다.)	26℃

< 고온의 허용온도 Level (미국 ACGIH) >
* ACGIH : America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나. 고열·고온의 환경에서의 대책

- 자연환기를 위해 창문과 출입문을 활짝 열어 둔다.
- 마루바닥 아래의 공기순환을 증가시킨다.
- 지붕의 재료와 건축설계는 특별히 중요하다. 지붕 밑면에 차단물질을 대고 밝은 색깔로 칠한다.
- 통풍장치를 설치하여 공기를 순환시켜 작업장에 도움을 준다.
- 내부 벽에도 밝은 색깔을 사용한다.
- 선풍기를 사용하여 공기를 순환한다.

다. 신체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방법

- 불필요한 동작을 피한다.
- 밀폐지역을 피한다.
- 고열기계, 화염 등과 같은 열 발생원을 피하고, 방열막을 설치한다.
- 정기적으로 음료를 마시되 적은 양을 자주 마시도록 한다.
- 직사광선을 피한다.
- 밀착되는 의복을 피한다.

라. 작업시간의 배정에 대한 고려

- 심한 고온 환경에서는 장시간의 작업을 피한다.
-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충분한 휴식을 한다.
- 작업복을 자주 세탁하도록 한다.

Culture

야구 단체 관람으로 임직원 소통의 장 마련



지난 5월 21일 우리 회사 임직원 및 가족 50여 명이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 두산베어스의 경기를 단체 관람했다.

구성원들이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고, 임직원간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자 준비된 이번 행사에서는 임직원은 물론 가족들도 참여해 열띤 응원을 벌였다. 함께 응원가를 부르고 힘차게 응원 구호를 외쳤으나, 롯데자이언츠가 두산베어스에 4:6으로 패하며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다소 아쉬운 경기 결과에도 단체 관람에 나섰던 선배가족들은 단합과 화합의 열기를 느꼈다.

우리 회사는 매년 프로 야구를 단체 관람하며 임직원 및 가족과 돈독한 추억을 쌓아가고 있다. 야구 단체 관람은 일터 밖에서 다 함께 한목소리로 응원하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직원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직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힘입어 우리 회사는 꾸준히 야구 관람 행사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여 직원들의 삶의 질과 문화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Culture

사업기획부 및 기술·개발부 직원들 부자가정에 온기 담은 사랑의 반찬 전달



'사랑의 반찬 만들기' 행사에 동참하기 위해 5월 20일, 사업기획부 및 기술·개발부 직원 7명이 팔을 걷어붙였다. 앞치마와 위생모, 위생 장갑,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들은 멸치볶음, 어묵 조림, 장조림 등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반찬을 만들었다.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반찬들을 반찬 통 50개에 나눠 담은 후 다대1동 주민센터로 배달했다. 반찬들은 부자가정 50가구에 전해져 따스한 온기를 더했다.

행사는 사하구 내 부자가정(父子家庭)에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 주자는 취지로 올해 2월부터 월 2회 진행되어 넉 달째 지속해오고 있다. '사랑의 반찬 만들기'는 모자가정에 비해 사각지대에 놓인 부자가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우리 회사는 소외된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경감하고 행복을 되찾아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생일 축하합니다

- ☑ **본사** 임재호(05.03) 이한준(05.05)
노창근(05.06) 최광현(05.07)
김명주(05.08) 김도윤(05.09)
푼 투(05.09) 권두철(05.10)
차성오(05.13) 성재경(05.14)
소 터(05.14) 박진호(05.16)
안토대디(05.17) 지기환(05.20)
원종면(05.23) 김진형(05.24)
두 흥(05.28) 허현정(음03.27)
허정민(음03.25) 최홍렬(음04.17)
최경호(음04.19) 박홍준(음04.21)
- ☑ **구평공장** 여태윤(05.01) 신평식(05.01)
김준호(05.05) 김한태(05.05)
김정식(05.20) 계동우(05.29)
안철순(음04.01) 김주환(음04.09)
이원규(음04.25)
- ☑ **영도공장** 송복순(05.05) 방재성(05.07)
유재기(음04.14) 이재근(음04.17)
손영돈(음04.23)
- ☑ **군산공장** 나태민(05.13) 강수아(05.16)
조지훈(05.18) 인드라지(05.27)
김명진(음03.26) 최형호(음04.11)
황도술(음04.21)
- ☑ **영암공장** 아 지(05.14) 김효희(05.17)
친타나(05.28) 김도희(05.30)
김대영(음04.02) 이인도(음04.03)
오충석(음04.14) 서형철(음04.20)



일사 기념일

- ☑ **본사** 고동욱(05.01) 박상계(05.01)
박수빈(05.02) 최재호(05.02)
권순현(05.06) 김동관(05.11)
류삼열(05.11) 전해정(05.11)
김영민(05.12) 박기덕(05.14)
박문염(05.17) 임혁빈(05.19)
- ☑ **구평공장** 양승현(05.12) 현재구(05.19)
민병철(05.19)
- ☑ **군산공장** 김건우(05.01) 김덕현(05.02)